

YEONCHEON · KOREA EST. 2021 KAWAKAWA · NZ

SMALLWINGS

THE SUBSTANCE ISSUE — B2B EDITION

COVER STORY

8년을 팔린 작은 틴, 카와카와 살브 멀티밤

일곱 가지 레시피의 이야기를
당신의 매대 위에 올려 드립니다.



좋아졌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아토피로 지친 아내의 피부 때문에 별을 치기 시작했고, 밀랍을 얻었고, 마오리족이 오래 상처에 쓰던 카와카와 잎을 올리브 오일에 우려 첫 살브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딱 들어오는 작은 틈 하나. 그걸 바른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좋아졌다."

그 한마디가 스몰윙즈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한 가지 원칙만 지켜 왔습니다. **정제수로 채우지 않는다.** 대부분의 화장품이 물로 채우는 자리를, 우리는 울무 추출물로, 알로에로, 우려낸 오일로 채웁니다. 포장과 광고에 쓸 돈을 레시피에 다시 넣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도 연천의 자체 공장에서 한 배치 한 배치 소량으로 만듭니다. 연천 자생 울무와 뉴질랜드 카와카와 — 두 대륙의 잎과 곡물이 일곱 가지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일곱 가지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피부 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어 여러분이 매대에 올리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째로 드립니다.

연천에서,
스몰윙즈 코스메틱스

IN THIS ISSUE

일곱 가지 레시피, 하나의 고집.

Seven recipes. One conviction — substance over surface.



COVER · P.06
카와카와 살브 멀티밤 틴
30g



P.09
연천율무 쿨다운 마스크



P.10
연천율무 56 크림



P.11
카와카와 알로에 콜라겐
로션



P.12
연천율무 토너



P.14
연천율무 쿨샤워



ORIGIN STORY

구멍 난 잎의 역설

마오리족은 벌레가 갉아 구멍이 난 카와카와 잎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느라 가장 많은 활성을 끌어올린 잎이라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TWO LANDS, ONE RECIPE

뉴질랜드의 잎, 연천의 곡물.

카와카와는 뉴질랜드 숲의 낮은 그늘에서 자랍니다. 마오리족은 이 하트 모양 잎을 상처에, 벌레 물린 자리에, 거칠어진 살갗에 썼습니다. 스몰윙즈는 이 잎을 지금도 올리브 오일에 직접 우립니다. 기계로 뽑는 추출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우려내는 인퓨전 — 첫 틴을 만들던 8년 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연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이 접경의 땅은 밤낮의 온도 차가 커서 곡물이 단단하게 여쁩니다. 연천 자생 울무는 예민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우리 라인의 진정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바디까지, 일곱 제품이 이 두 원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원료를 사 오는 브랜드가
아니라,
원료의 산지에서 온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바이어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산지와 창업자가 실제로 연결된 브랜드의 서사는 흉내 낼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는 서사는 매대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KAWAKAWA · AOTEAROA NZ

COIX · YEONCHEON DMZ

COVER STORY · HERO PRODUCT

모든 이야기가 이 틴에서 시작됐다

KAWAKAWA SALVE & LAVENDER · MULTI-BALM TIN 30g



비즈왁스 20%.

합성 유화제 0%.

직접 우려낸 카와카와

인퓨즈드 올리브 오일 47%.

WHERE IT ALL BEGAN

8년 전 첫 레시피를 그대로 담은 헤리티지 밤

KAWAKAWA SALVE MULTI-BALM · TIN 30g · SW-SLV-02

왜 만들었나. 아토피로 지친 가족의 피부에 발라 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시중의 밤은 대부분 합성 유화제로 질감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밀랍 20%로 몸을 세웠습니다. 벌을 치던 사람이 자기 밀랍으로 만든 밤 — 이 제품이 곧 브랜드의 창업기입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체온에 사르르 녹아 부드럽게 스며들고, 그 위에 밀랍의 얇은 보호층이 남습니다. 수분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 주는 이 한 겹이 입술, 굳은 각질, 심하게 건조한 부위, 아이존까지 지켜 줍니다. 끈적임 없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매대에서 하는 일. '창업 스토리가 그대로 판매 서사가 되는 제품'은 라인에 하나뿐입니다. 손님에게 브랜드를 한 손에 쥐여 주는 입문 SKU이자, 선물·웰컴 키트·호텔 어메니티까지 뺀는 고단가 핸드메이드 포지셔닝의 앵커입니다.

THE RECIPE

카와카와 인퓨즈드 올리브
47%

비즈왁스 20%

보리지(GLA) 오일 11%

캘렌둘라 왁스 7%

라벤더 에센셜 4%

합성 유화제 0% · 무정제수 ·
오일 베이스



BUYER'S NOTE

SKU · 용량 SW-SLV-02 · 틴 30g (스틱 15g = SW-SLV-01
별도 운용)

세트 제한 FIRST TOUCH (샬브 + 모이스처 클렌저)
브랜드 입문 키트

추천 채널

편집숍 카운터 · 기프트/웰컴 키트 ·
호텔·스파 어메니티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자체/PB 라벨 대응 가능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여는
작은 틈 하나 — 손님은 제품이 아니라
이 장면을 삽니다."

No.02

SHEET MASK · 진 정 / 쿨 링

정제수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YEONCHEON COIX COOL-DOWN MASK

왜 만들었나. 시트마스크 에센스는 대부분 정제수가 베이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째로 비우고 연천 울무 추출물 78.18%로 채웠습니다. 전성분 첫 줄이 '물'이 아니라 '울무'인 마스크 — 이 카테고리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햇볕과 열기로 달아오른 피부의 온도를 잔잔하게 내립니다. 톡 쏘는 멘솔 대신 멘틸락테이트를 써서, 시술 직후처럼 예민해진 피부에도 따갑지 않게 얹히는 약산성 한 장입니다. 붉은 기가 가라앉고 수분이 겹겹이 차오릅니다.

에센스의 78%가 울무.

매대에서 손님을 멈춰 세우는 숫자입니다.



BUYER'S NOTE

SKU · 용량	SW-MSK-01 · 22ml, 10매입 박스 · pH 5.5	추천 채널	H&B · 피부과/에스테틱 리테일 · 여름 시즌 매대
세트 제안	COOL DOWN DUO (마스크 + 쿨샤워) 여름 기프트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단품/박스 동시 운용 권장



No.03

DERMA CREAM · 고 기 능

물 대신 율무 56%. 그 위에 더마 활성 4종.

YULMU 56 · QUIET RESTORATION CREAM

왜 만들었나. '비싼 한 통'이 아니라 '진짜 들어간 한 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제수 자리를 율무 55.98%로 바꾸고, 45°C 이하 저온 후첨 공정으로 EGF·카퍼펩타이드·세라마이드·히알루론산을 살려 넣었습니다. 4kg 소량 정밀 배치로만 만듭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무너지기 쉬운 피부 장벽을 세라마이드가 메우고, 펩타이드가 탄력의 결을 돌려세웁니다. 시어버터의 영양이 감싸는데도 백탁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마무리 — 30대 이후의 피부가 밤마다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마 활성 트리오를 단일 크림에 응축한,
라인의 객단가 앵커.

BUYER'S NOTE

SKU · 용량	SW-CRM-01 · 30g · pH 5.5	추천 채널	더마·약국 채널 · 프리미엄 편집숍 · 선물 수요
세트 제안	DAILY TRIO (토너 + 로션 + 크림) 풀퍼널 세트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4kg 소량 배치' 한정 스토리 운용

No.04

WATER-FREE LOTION · 비 건 지 향

물 없이 빛은 로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KAWAKAWA ALOE COLLAGEN LOTION

왜 만들었나. 로션의 절반 이상은 보통 물입니다. 우리는 'No Water' 철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할 한 병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스 전체가 알로에베라 젤 76% — 여기에 식물성 아카시아 콜라겐 13%와 살구씨 오일, 카와카와를 더했습니다. 동물성 원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알로에가 달아오른 피부를 시원하게 가라앉히고, 식물성 콜라겐이 촉촉한 탄력막을 만듭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스며들어 트러블이 올라온 예민한 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저녁, 매일의 에멀전입니다.

전성분 1번이 정제수가 아니라 알로에.
12회 이상 재생산된 검증된 베스트셀러.



BUYER'S NOTE

SKU · 용량	SW-LOT-01 · 200ml · pH 5.5	추천 채널	비건샵 · 클린뷰티 큐레이션 · 자연주의 편집숍
세트 제안	DAILY TRIO 미들 게이트웨이 · 가성비 회전 SKU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신규 고객 락인용 진입 상품

No.05

TONER · 데 일 리 진 정

알코올 토너에 지친 피부의 첫 겹.

YEONCHEON YULMU TONER

왜 만들었나. 토너의 진정 성분은 보통 '한 스푼'입니다. 우리는 금잔화(칼렌둘라) 추출물을 20% — 단일 추출물로는 드문 함량으로 넣고, 울무 리퀴드 10%, 그린티, 알로에를 겹겹이 쌓았습니다. 알코올은 넣지 않았습니다. 화한 자극 대신 잔잔함을 선택했습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세안 직후 가장 예민한 순간의 피부 결을 차분하게 정돈합니다. 고분자·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표층과 심층의 수분을 동시에 잡아, 다음 단계가 더 깊이 안착하도록 길을 냅니다. 매일 밤 가장 먼저 닿는 약산성 한 겹입니다.

칼렌둘라 20% — 진정 토너 시장에서
숫자 하나로 끝나는 차별화.



BUYER'S NOTE

SKU · 용량	SW-TON-01 · 200ml · pH 5.5-6.0	추천 채널	민감·진정 키워드 매대 · 저자극 큐레이션
세트 제안	DAILY TRIO의 입구 · 볼륨 회전 SKU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40kg 대량 배치, 짧은 리오더 리드타임

The Daily Quiet, 매일의 잔잔함.

자극적인 것들이 피부를 혼든 하루의 끝.
스몰윙즈의 루틴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토너가
결을 가라앉히고, 로션이 수분의 층을 세우고,
크림이 하루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이라는 말을 아껴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레시피가 예민해진 피부
하나를 위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일관성이
곧 진열의 언어가 됩니다 — 어떤 제품을 집어도
브랜드가 같은 약속을 하니까요.

THE RITUAL · 풀 퍼 널 3 단

01 연천울무 토너 — 결을 가라앉히는 첫
걸

02 알로에 콜라겐 로션 — 수분과 탄력의
층

03 울무 56 크림 — 하루를 닫는 마지막
단계

= DAILY TRIO 세트 · 진입 → 리텐션 → 객단가
상향의 한 줄 동선

피부가 조용해지는 시간을 파는 일 —
그것이 이 라인의 진짜 카테고리입니다.





No.06 BODY WASH · 쿨 링

더운 밤을 끝내는 가장 시원한 한 통.

YEONCHEON YULMU COOL SHOWER · 500ml

왜 만들었나. 얼굴을 진정시키는 브랜드가 왜 바디는 못 하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얼굴 라인의 울무 시그니처를 그대로 바디로 확장한 단 하나의 SKU — 향료로 시원함을 흉내 내는 대신, 멘솔·페퍼민트·유칼립투스의 쿨링 트리오를 정면으로 넣었습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풍성한 거품이 더위와 끈적임을 걷어 내고, 박하의 청량감이 샤워 후에도 길게 이어집니다. 약산성 식물 유래 세정이라 씻은 뒤에도 당기지 않습니다. 운동 후, 한여름 밤 — 하루의 온도를 내리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BUYER'S NOTE

SKU · 용량 SW-BDY-01 · 500ml · pH 5.0~5.5
세트 제안 COOL DOWN DUO (얼굴 마스크 + 바디)

추천 채널 헬스장·필라테스 · 아웃도어/골프 · 호텔 어메니티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50kg 최대 배치, 대량 발주 대응

No.07

FOAM CLEANSER · 약 산 성

거품이 지나간 뒤에도 당기지 않도록.

KAWAKAWA MOISTURE CLEANSER · PH 5.5

왜 만들었나. 클렌저의 본질은 '잘 닦이되 안 당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둘을 맞바꿨습니다. 우리는 식물 유래 세정 성분의 듀얼 시스템에 글리세린을 11% 없어, 세정 후의 당김을 설계 단계에서 없앴습니다.

피부 위에서 하는 일. 조밀한 거품이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걷어 내고, 행군 자리에 보습의 잔여감을 남깁니다. 강한 세안에 지친 민감한 피부의 매일 아침저녁 — 페퍼민트의 산뜻한 후미로 하루를 엽니다.

폼 클렌저인데 글리세린 11%.

세정력과 보습, '둘 다'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BUYER'S NOTE

SKU · 용량	SW-CLN-02	추천 채널	약산성/민감 큐레이션 · 온라인 정기구독 · 가족 단위
	· 200ml · pH 5.5		
세트 제안	FIRST	단가 · MOQ	채널별 협의 · 40kg 대량 배치, 안정 공급
	TOUCH (샬브 + 클렌저) 입문 키트		

일곱 SKU, 매대에 올릴 준비가 됐습니다.

#	제 품	카 테 고 리	용 량	pH	SKU
01	카와카와 살브 멀티밤 틴 30g	멀티밤 틴	30g	오일 베이스	SW-SLV-02
02	연천울무 쿨다운 마스크	시트마스크	22ml·10매	5.5	SW-MSK-01
03	연천울무 56 크림	더마 크림	30g	5.5	SW-CRM-01
04	카와카와 알로에 콜라겐 로션	무정제수 로션	200ml	5.5	SW-LOT-01
05	연천울무 토너	토너	200ml	5.5-6.0	SW-TON-01
06	연천울무 쿨샤워	바디워시	500ml	5.0-5.5	SW-BDY-01
07	카와카와 모이스처 클렌저	폼 클렌저	200ml	5.5	SW-CLN-02

SUGGESTED SETS · 첫 발 주 큐 레 이 션

Daily Trio

토너 · 로션 · 56 크림.
진입→리텐션→객단가
상향을 잇는 풀퍼널 세트.

Cool Down Duo

쿨다운 마스크 · 쿨샤워.
얼굴+바디 여름 시즌
기프트로 회전과 노출을
동시에.

First Touch

카와카와 살브 틴 ·
모이스처 클렌저.
브랜드 입문·선물·웰컴
키트용 진입 앵커.

단가·MOQ·라벨(자체/PB)·수출 조건은 채널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전 제품 연천 자체 공장 생산 — 레시피·공급 유연 대응이 가능합니다.



WHOLESALE INQUIRY · 입 점 문 의

당신의 매대에, 이야기를 올려 드립니다.

스몰윙즈 코스메틱스 · 경기도 연천 자체 제조

Instagram @smallwings_official

SMALLWINGS

GREEN BIO SKINCARE · VOL.02 — 2026

B2B 도매 전용 자료 — 본 카탈로그의 함량·표현은 레시피 원본 기준이며, 소비자 대상 표시·광고 시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기능성 표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후 가능하며, 효능·효과 실증 자료는 별도 제공됩니다. 단가·MOQ·용량은 협의 및 최종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